

2020년 5월 2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중 마찰 확대 불구 경기 회복 기대로 강세 언택트 관련 종목군 하락폭 축소 및 상승 전환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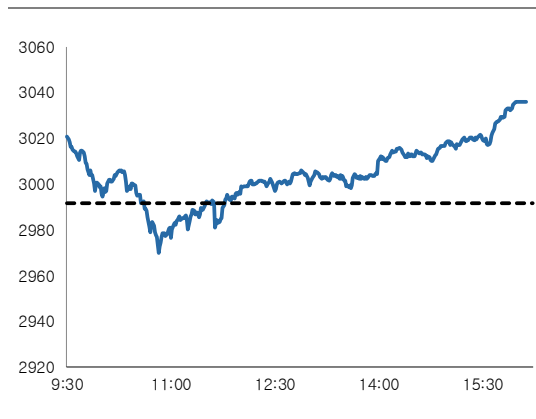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나스닥 2% 급락에서 상승 전환

나스닥이 홍콩을 둘러싼 불안에 장 초반 2%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 확대. 특히 전일에 이어 언택트 관련주들의 하락이 나스닥 부진 요인. 그러나 여전히 경제 재개에 기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뉴욕 연은 총재와 JP 모건 CEO 의 경기 바닥론 언급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 성공,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회복 속도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영향은 제한(다우 +2.21%, 나스닥 +0.77%, S&P500 +1.48%, 러셀 2000 +3.11%)

미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장 초반 폼페이오가 홍콩을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이 격화되자 '홍콩 특별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언택트 관련주가 매물이 출회되자 나스닥이 한때 2% 넘게 하락. 다만, JP 모건이 경기가 V자로 회복되고 있어 은행과 소매업체에 대해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금융, 산업재, 소매업종이 전일에 이어 강세를 보이며 상승 전환에 성공. 더불어 뉴욕연은 총재가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나 하반기에 반등이 예상된다" 라고 주장하고, JP 모건 CEO 또한 금융 컨퍼런스에서 "정말 빠른 회복을 볼 수 있으며 좋은 기회" 라고 언급하는 등 경기 회복 기대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 더불어 4% 넘게 급락하던 마이크론(+7.97%)이 장중에 분기 실적을 상향 조정하자 8% 가까이 급등한 데 힘입어 여타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 요인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기업들이 경제가 재개 됨에 따라 전반적인 활동이 회복 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으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며 우려를 표명. 특히 "모든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이 크게 감소했고, 소비지출도 추가 감소했다" 라고 발표. 부동산과 관련 "많은 세입자가 임대료 지불을 연기하거나 지불하지 못했다" 라며 관련 우려도 언급. 한편, "PPP 대출(급여보호프로그램)은 많은 기업들의 해고를 제한하거나 피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소매와 레저 부문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 재개에도 불구하고 업무 복귀로의 어려움은 이어졌다"고 언급. 이러한 연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 회복 기대로 강세를 이어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031.20	+0.07	홍콩항셍	23,301.36	-0.36
KOSDAQ		724.59	-0.62	영국	6,144.25	+1.26
DOW		25,548.27	+2.21	독일	11,657.69	+1.33
NASDAQ		9,412.36	+0.77	프랑스	4,688.74	+1.79
S&P 500		3,036.13	+1.48	스페인	7,174.50	+2.44
상하이종합		2,836.80	-0.34	그리스	660.30	+3.91
일본		21,419.23	+0.70	이탈리아	17,910.25	+0.2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마이크론 -4% → +8%

마이크론(+7.97%)은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속되자 한 때 4% 넘게 급락했다. 그러나 장중에 시장 예상을 상회한 EPS와 매출 전망을 업데이트 하자 8% 가까이 급등했다(EPS 예상 56센트, 전망 75~80센트, 매출 예상 49.3억 달러, 전망 52~54억달러). 인텔(+1.96%), 브로드컴(+1.98%), 램리서치(+3.66%) 등 여타 반도체 업종도 마이크론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폭을 확대했다. 다만, 여전히 차익 매물이 유입되며 상승폭은 제한 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7% 상승에 그쳤다. 한편, NVIDIA(-2.21%), 넷플릭스(+1.23%), 아마존(-0.47%), MS(+0.13%), 줌비디오(-1.24%) 등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장 중 하락폭을 키우다 오후 들어 낙폭이 축소되거나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백신 기대가 높은 모더나(-9.58%)는 임상 결과 발표후 급등하자 대주주가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때 20% 넘게 급락하다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했다. 페이스북(-1.32%)과 트위터(-2.76%)는 트럼프가 SNS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경고하자 하락했다. 테슬라(+0.17%)는 미-중 마찰 확대 우려로 하락하다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다. JP모건(+5.79%), 씨티그룹(+8.49%) 등 금융주와 캐터필라(+4.27%) 등 기계, US스틸(+6.62%) 등 철강업종은 경기 회복 기대로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35%	대형 가치주 ETF(IVE)	+2.31%
에너지섹터 ETF(OIH)	+3.48%	중형 가치주 ETF(IWS)	+2.50%
소매업체 ETF(XRT)	+3.43%	소형 가치주 ETF(IWN)	+4.38%
금융섹터 ETF(XLF)	+4.34%	대형 성장주 ETF(VUG)	+0.67%
기술섹터 ETF(XLK)	+0.57%	중형 성장주 ETF(IWP)	+1.14%
인터넷업체 ETF(SOCL)	-1.36%	소형 성장주 ETF(IWO)	+2.34%
인터넷업체 ETF(FDN)	+0.16%	배당주 ETF(DVY)	+1.92%
리츠업체 ETF(XLRE)	+2.1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62%
주택건설업체 ETF(XHB)	+4.2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8%
바이오섹터 ETF(IBB)	+0.91%	미국 국채 ETF(IEF)	+0.08%
헬스케어 ETF(XLV)	+1.04%	하이일드 ETF(JNK)	+0.30%
곡물 ETF(DBA)	-0.80%	물가연동채 ETF(TIP)	+0.10%
반도체 ETF(SMH)	+1.51%	Long/short ETF(BTAL)	-1.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00.79	+1.16%	+5.76%	+8.99%
소재	345.23	+1.02%	+4.17%	+5.23%
산업재	579.41	+3.34%	+9.73%	+6.68%
경기소비재	1,006.07	+1.29%	+3.55%	+8.11%
필수소비재	600.31	+1.56%	+2.47%	-1.08%
헬스케어	1,168.41	+1.05%	+0.35%	+0.85%
금융	398.50	+4.34%	+11.35%	+5.59%
IT	1,701.70	+0.54%	+1.54%	+9.75%
커뮤니케이션	181.35	+0.55%	+3.55%	+11.65%
유틸리티	290.83	+1.07%	+2.43%	-3.24%
부동산	213.35	+2.14%	+8.04%	+0.9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마이크론 효과 Vs. 중국 전인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4% MSCI 신흥 지수 ETF 는 0.32%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38.11 원으로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언택트 관련 종목이 부진한 반면, 은행, 철강, 건설, 기계 등이 강세를 보이자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오늘 미 증시도 전일에 이어 이러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며 나스닥의 상대적 부진이 이어가 오늘도 한국 증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일과 달리 언택트 관련주가 낙폭이 축소되어 차별화의 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반도체 업종인 마이크론(+7.97%)이 장 중 4% 넘게 급락하다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자 8% 가까이 급등한 점은 국내 관련주의 투자심리에 우호적이다(시장 전망 EPS 56 센트, 발표 75~80 센트)

반면,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회복 속도 지연을 언급한 점은 부담이다. 이는 외국인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격화되고 있으며, 오늘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 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로 인해 역외 위안화의 약세폭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달러/원 환율의 변화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증시는 업종별 제한된 차별화가 예상된 가운데 중국 전인대 소식과 그로부터 파생될 외환시장의 움직임,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 영향이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여전한 기관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5 월 리치몬드 연은 지수는 전월(-53)이나 예상(-39) 보다 개선된 -27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은 신규수주(-61→-35), 고용지수(-21→-16) 등 대부분 개선되었다.

5 월 스테이츠스트리트 지수는 전월(73.0) 보다 소폭 개선된 73.3 으로 발표됐다. 기준선인 100 인 이 지표를 감안 여전히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안전자산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미지역(68.1→67.8), 아시아(80.8→80.5)는 안전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많은 반면 유럽(102.3→108.6) 지역 기관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을 더 늘렸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현재 진행 중인 감산 규모를 7월부터 예정대로 줄이기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매물이 급격하게 유입되며 하락했다. 더 나아가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마찰에 따른 불확실성 또한 매물 출회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확산 된 가운데 여타 환율에 대해 혼조 양상을 보였다. 파운드화가 EU 와의 협상 불확실성이 유입되며 달러 대비 약세폭이 확대된 가운데 유로화는 최근 약세에 따른 반발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미-중 마찰 확대에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5%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중 마찰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자 하락 출발했다. 여기에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과 회복 속도 지연 등을 경고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를 비롯해 일부 연준위원들이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하자 낙폭이 제한되었으며 특히 5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4 배)를 하회한 2.28 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감소한 점도 금리 하락을 제한해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다. . .

금은 경기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중 마찰이 확산되자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마찰이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부진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3%, 철근은 0.14%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2.81	-4.48	+2.66	Dollar Index	99.030	+0.12	-0.09
브렌트유	34.74	-3.95	-2.83	EUR/USD	1.0999	+0.15	+0.17
금	1,726.80	-0.08	-1.77	USD/JPY	107.8	+0.24	+0.25
은	17.757	+0.92	-0.80	GBP/USD	1.2255	-0.64	+0.08
알루미늄	1,525.00	+0.36	+2.21	USD/CHF	0.9688	+0.33	+0.38
전기동	5,259.50	-1.91	-1.78	AUD/USD	0.6614	-0.59	+0.26
아연	1,920.50	-3.10	-5.56	USD/CAD	1.3768	-0.07	-0.96
옥수수	320.50	+0.47	-0.23	USD/BRL	5.2873	-1.13	-7.12
밀	504.50	-0.44	+1.15	USD/CNH	7.1793	+0.49	+1.06
대두	848.50	+0.18	+0.71	USD/KRW	1234.40	+0.01	+0.33
커피	102.50	-2.47	-4.25	USD/KRW NDF 1M	1238.11	+0.57	+0.86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87	-0.98	+0.66	스페인	0.642	+2.20	+0.70
한국	1.331	-0.60	-2.90	포르투갈	0.625	-5.60	-12.70
일본	0.004	-0.40	-0.20	그리스	1.564	-7.50	-22.50
독일	-0.414	+1.50	+5.40	이탈리아	1.499	-4.90	-13.10